# 중동발 유가 급등 재현, 시장 공포심리 확산에 증시 약세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## 3 대증시 1%대 하락과 국채금리 상승, 달러 강세

- 미 증시는 DOW -1.56%, S&P500 -1.52%, NASDAQ -1.78% 하락. 전쟁 영향이 투자심리 악화한 가운데 에너지, 유틸리티 섹터는 선방
- 이란전쟁이 재차 격화,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 확대에 유가 10%대 급등 WTI $95, 브렌트유 $101
- 국채금리 상승 10Y 4.265%(+5.9bp), 2Y 3.739%(+10.3bp), 달러인덱스 99.7pt 상승
  CNN 공포탐욕지수 이란전쟁 발발 후 첫 '극도의공포' 구간 진입
- 암호화폐시장은 중동지역 금융 불안에 따른 자금 이전 수요로 비트코인 7 만달러 선 방어

## 이란 차기 지도자의 강경한 입장에 유가 완화책도 속수무책

-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첫 공식성명에서 미국,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 선언. 특히, 압박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할 의지 시사. 걸프만 상선 피격 보도도 이어지며 유가 자극
- 앞서 미국이 1.7 억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, 존스법의 30 일간 면제 등 유가 대응책들을 발표했으나 효과 제한적
-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 해군의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가 가능한 즉시 진행될 것이라 발언.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그 시점에 대해 이달 말 쯤으로 언급

## 다음주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인플레 우려

- 주요 IB 들은 역사적으로 지정학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단기에 그쳤으며, 변동성 장세에서의 매도는 부적절하다고 코멘트. 다만, 유가 상승 장기화시 통화정책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의견. 골드만삭스는 이란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시점을 9 월로 3 개월 연기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.3 만, 컨센 소폭 하회
- 1 월 신규주택착공 148.7 만건, MoM+7.2% 컨센 상회. 건축허가 137.6 만건 MoM-5.4% 컨센 하회
  한편, 프레디맥 30 년 모기지 평균금리 6.11%, 다시 6%대 진입
- 1 월 무역적자 $545 억, 수출 호조 영향 컨센서스 하회. 한편, 미 정부는 한국, 중국, 일본 등 16 개국 대상 새 관세 절차 착수

## 특징주: 기술주 약세 가운데 PLTR, CRM 상승

| 티커 | 종목명 | 수익률 (1D,%)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PLTR | 팔란티어 | +1.3% | 중동 리스크에 AI 기술주 약세 보인 가운데, 방산S/W주 강세. 한편 CEO는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공식 지정하며 블랙리스트에 올렸음에도 불구, 여전히 앤트로픽 AI 모델을 사용 중이라 밝힘 |
| CRM | 세일즈포스 | +2.7% | $25B 규모의 선순위 채권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입 및 AI 모멘텀에 강세. 자체 플랫폼 에이전트포스 기대감과 더불어, 엔비디아로부터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파트너십 제안을 받는 등 AI 생태계 내 입지 강화 기대 |
| MS | 모건스탠리 | -4.1% | 사모신용 펀드 환매 제한 여파 등 사모신용 우려 지속되며 금융주 전반 약세 |
| CF | CF 인더스트리스 | +13.2% | 중동 사태발 물류 차질로 인한 가격 상승 전망 대두되며 비료주 강세. 뉴트리엔(+5.9%), 모자이크(+7.6%) 등 상승 |
| DG | 달러제너럴 | -6.1% | 매출과 EPS 모두 컨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,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하락. CEO는 불안정한 소비 환경과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 표명. 동일매장매출 성장 및 신규 매장 출점 전망치 보수적으로 제시됨 |